

에디슨 한인 성당

Our Lady of Mercy Parish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I have come not to establish peace, but rather division.

미사 안내

한국어 주일 미사 오전 11:30
 영어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0:00
 영어 토요 미사 오후 4:00
 평일 미사 (화) 오후 7:00
 (수 - 금) 오전 9:00
 평일 미사 30분 전 묵주기도 봉헌
 Website <https://www.edisonkcc.org>
 Email office@edisonkcc.org

성사 및 교리 안내

고백성사 미사 15분 전
 혼인성사 6개월 전 신부님께 연락
 유아세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병자성사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예비자교리 매 주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 주일 오전 10:00 - 11:15

안내봉사

8월 순교자들의 모후 Pr. 9월 성모 성심 Pr.

친교봉사

8/18 먼로 8/25 노스에디슨

성당 및 사무실 안내

성당 및 사무실 The Church of Our Lady of Mercy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 356-1037
 근무시간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성직자 및 평협회장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첸시오

복사

8/18 Gregory Baek, Austin Chu
 8/25 Aidan Choo, Gina Park

전례 봉사자

일시	8/18	8/25
1독서	오현주 요한	이윤정 프란체스카
2독서	백원선 안나	추해웅 어스틴
신자들의 기도	강숙희 멜라니아	조혜남 로사리아
봉헌	강성천, 강숙희	조인, 조혜남
성체분배	유용희, 백영숙	오애희, 이재성

오늘의 성가

입 당	44	평화를 주옵소서	성 체	153 175	오소서 주 예수여 이 보다 더 큰 은혜와
봉 헌	215 340	영원하신 성부 봉헌	파견	65	예루살렘 복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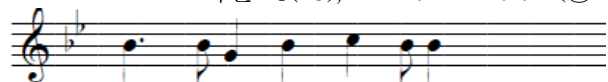
말씀의 초대 **■** 치드키야임금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저수 동굴에 가두었다가 에벳 멜렉의 말을 듣고 그를 꺼낸다(제 1 독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자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예레 15,10).>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8,4-6,8-10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0(39),2 가. 2 다-3,4,18(◎ 14 나)



후렴: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 2 독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4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음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 사. 모/홍원기(에우세비오)가족 ▪ 최기쁨, 밝음, 누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1,208	OLM 주일 헌금	\$ 3,801	미사 참여자 수	154 명
교무금 (\$ 2,670)	최영찬(7-8) 육순재(7-12)	서정근(7-8) 심윤조(1-6)	나한복(7-8) 김인자(7-10)	곽신규(7-8) 임안나(7-8)	황덕삼(7-8) 최완준(7-9) 이승권(4-9) 성낙순, 이순영(7)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공동체 소식

◆ 2019년 신자 주소록 최종 확인 (8/18- 8/25)

• 친교실 성물대 옆에 공시된 주소록 최종 확인 바랍니다.
주소록 발간을 위한 최종 확인이니,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복사단 전체 교육

• 일시 : 2019년 8월 18일(주일) 미사 후
• 장소 : 성당
• 대상 : 모든 복사단원(신입단원 포함)

◆ 예비자 교리반 안내

• 교육기간 : 2019년 10월 - 2020년 부활절
• 대상 : 예비신자
• 문의 사항 : 사무실 또는 선교분과장 이서형(요안나)

◆ 신자등록서 배부

• 아직 신자등록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도서관리 봉사자 모집

• 본당 도서 관리 봉사해주실 분 또는 단체를 구합니다.
• 문의 : 사무실 또는 사회복지분과장 신용철(다니엘)

◆ 8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8/24-8/25 양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주보 광고주 모집

• 9월부터 발행되는 새 주보에 게재될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란에 격주로 년 200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발전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9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High Bridge Hills Golf Club
• 참가비 : 100불
• 성당 입구에 신청서를 비치해두었으니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스폰서쉽 안내

- 타이틀 스폰서 \$500
- 토너먼트 스폰서 \$300
- 홀 스폰서 \$100-\$200

◆ 후원해주신 분

역대 사목회장을 역임하신 이대우, 최승용, 김영필, 유병기, 황태진, 변태용, 이창우, 이종권, 서경호 회장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셨고, 요셉회, 노스브런스위 구역, 미 신심단체 Rosary Altar Society, Holy Name Society 에서도 후원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 뉴욕/뉴저지 제 4 차 선택 주말

- 날짜: 2019 년 8 월 31 일(토) 10AM - 9 월 2 일(일) 3PM
- 참가대상: 1981-1997 년생 청년 미혼 남녀 (한국어권, 영어권)
-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 Rt206 Newton, NJ 07860
- 참가 신청: www.choicenynj.com
- 참가 문의: choicenynj@gmail.com
- 참가 신청비: \$250 (\$50 non-refundable deposit)

◆ One-Day 9-Mile Walking Pilgrimage

- 메타천 교구 주관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St. Juan Diego 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영성의 순례길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후 주교님 집전 미사가 있습니다.
- 일시: 2019 년 9 월 21 일(토) 10AM - 8PM
- 장소: Immaculate Conception Parish
- 참가 신청: www.LightingHeartsOnFire.org/walking-pilgrimage
- 참가 신청비: \$20 (8/30 까지 신청자에 한함) \$25 (8/30 이후 신청자)

◆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결혼 25 주년, 50 주년을 기념하여 혼인서약을 새롭게 하는 혼인갱신식이 체키오 주교님 주례로 있습니다.
- 일시: 10 월 27 일(주일) 오후 4 시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마감: 10 월 11 일 (금)
- 온라인 등록: <https://diometuchen.org/offices-and-ministries/family-and-pastoral-life/family-life/silver-and-gold/>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조원봉 빈첸시오,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정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반석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8 월 24 일(토) 오후 12 시 친교실

◆ 9 월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8 월 25 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8 월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8 월 25 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구역모임

- 사우스 브런스윅 구역
- 일시: 8 월 18 일(주일) 미사 후
- 장소: 한광동(바오로) 형제님 댁

◆ 노스에디슨 구역

- 일시: 8 월 30 일(금) 저녁 7 시
- 장소: 오용덕(헨리코) 형제님 댁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습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누입니다

✎ 루카 12:49-53 (연중 제 20 주일)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

1. 성경 속에는 ‘불’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지르러 오신 불”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 하는지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51)

2. 예수님은 ‘분열’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파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맞설 것이다.” (루카 12,52)

3.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집안에서 의견이 나뉘어 서로 맞선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타협이나 중립 없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루카 13:22-30 (연중 제 21 주일)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루카 13,22)

1. 예수님은 항상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가시며 사람도 만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치유도 하십니다. 특별히 루카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당신의 죽음이 예기되어 있기에 비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가는)의 여러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루카 13,26)

2.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뵈게 되면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어 봅시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한 말들에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라는 말로 반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쫓겨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루카 11,30)

3. 지금, ‘쫓겨’, ‘첫째’ 등 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